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5차 정기총회 회의록

2015. 1. 17 (토) 작성자 : 정은진(광운대 도서관)

일시	2015. 1. 17 (토) 14:05-16:15	장소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시청각실
참석자	정회원 참석 19명, 정회원 위임 55명, 학생회원 1명 * 참석자 명단은 비공개		

확 인

직 위	이 름	날 인
협회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1부 : 2014년 활동보고

1. 개회선언

- 개회선언 (황진현 교육소통국장)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20조에 따라 전체 재적정회원 326명 중 1/5인 66명(위임장 55명, 참석 13명)이 넘었으므로 정족수 충족되어, 총회 개회가 성립되었습니다.

2. 개회사 및 인사말

- 개회사 : 이원규 협회장
 -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차 정기총회 자리이다. 오늘 총회에서 3대 협 회장, 감사를 선출하게 된다. 3기 집행부가 회원 뜻을 잘 모아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기 원해달라.
- 축사 : 이xx 회원
 -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5번째 정기총회를 맞이하였다.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고 모자란 점 이 있으면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5번째 정기총회를 축하한다.

3. 2014년 활동보고

- 현황보고 : 황진현 교육소통국장 (자료집 1~5P 참고)
 - 협회 조직구성 및 회원현황 보고 진행
 - 전년대회 회원은 총68명 증가하였으나, 2014년 회비 장기미납회원들을 준회원으로 전환하여 정회원 수는 전년대비 감소
 - 협회의 자산은 창립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부채가 약 1천여 만원임

- 협회장 종합보고 : 이원규 협회장 (자료집 8~9P 참고)
 - 2014년 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무처의 조직구성 및 위원회의 인성 등 조직활동의 기틀을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부나 분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또한 회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이며 차별화된 회원서비스 정책도 요구되며, 협회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회비 인상 등에 대한 노력도 요구된다.
 - 2014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를 개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을 채택했으며, 기관지 'KAMRA'를 창간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협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이 다소 미진한 측면은 보완할 사항이다.
 - ICA 서울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가기록원 및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켜가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현재 소통이 단절된 상태이다. 협력 및 소통체계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사무국 : 박종연 사무국장 (자료집 10P 참고)
 - 2014년 사무국은 회원관리 강화 및 회원배가, 회원 간 소통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전체적인 회원 증가, 지부 및 분과설립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회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 교육소통국 : 황진현 교육소통국장 (자료집 11P 참고)
 -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인 예비학교(2월), 여름학습반(7월)이 교육소통국에서 준비하는 가장 큰 사업이었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는 '기록학 심화 스터디' 및 '경청'을 운영하여 성과가 있었다.

- 출판국 : 이보람 출판국장 (자료집 12P 참고)
 - 2014년에는 KARMA 1, 2호를 출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KARMA가 되었으면 한다. 이외 '대한민국 기록관 연감'의 발행이 무산된 것이 아쉬움에 남는다.

- 부산지부(두레)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13P 참고)
- 대학기록관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자료집 14P 참고)
- 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자료집 15P 참고)
-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활동보고 (자료집 16P 참고)

4. 2014년 결산보고

- 박종연 사무국장 (자료집 17~19p참고)
- 2013년 대비 회비납부가 4백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키비스트 캠프 등 대형 사업 및 인건비 추가 지출 등으로 인하여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5. 질의응답 : 없음

6. 감사보고

- 이영학 감사 (자료집 20~21p참고)
- 작년보다 회원수는 증가하였으나 준회원 전환 등으로 정회원수는 감소하였다. 앞으로는 준회원으로 전환된 회원들이 협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협회가 아키비스트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단체라는 점을 외부에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 지부 및 분과의 설립, 제2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의 성공적 개최는 의미있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지부와 분과 설립을 추진해야하며, 아키비스트 캠프가 아키비스트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함

7. 협회비 인상(안)

- 이원규 협회장 (자료집 23p참고)
- 2014년 1월 총회 때 이미 안건으로 올렸고 부결된 바 있음,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비 자율인상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차기 집행부가 세부(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과 논의 후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 윤XX 회원 : 인상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동의. 회원 정리는 잘한 부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원들이 의무를 찾아야 한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리거나인데 비용을 늘려야 한다. 연봉차등 등은 반발이 클 것이다. 두 가지 방도가 있을텐데 정회원을 준회원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준회원을 다시 정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신규회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분들이 왜 탈퇴했는지 원인을 알아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회원 배가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후원회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한다. 우리 협회만의 수익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회원 권익을 높이는 강좌,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 등. 협회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이라 한다면 그런 활동이 홍보수단이 될 것 같다. 이를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협회비는 자율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최소 마지노선을 정하고 해보는게 어떨까 한다.

- 협회장 : 사업아이템 개발, 당부말씀까지 감사하다.
- 정XX 회원 : 필요에 의한 회비 인상안은 동의한다. 총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보고 및 내년에 대한 예산 심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른 회비를 바탕으로 계획이 나와야 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자료집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설명을 부탁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회장 :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제도 개선이 있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집행부 선출이 앞선다면 사업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작년에 협회비 인상안을 제안했을 때 예상되는 예산편성안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이번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안 제시는 어렵다. 평년도 비교시 매달 3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 총액으로 회비 얼마를 받아야하겠다는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상에 대한 방침을 묻고자 한다.
- 정XX 회원 : 2015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되는가?
- 협회장 : 의결, 심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올리고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 안병우 전임 회장 : 다음 회장과 관계없이 총회에는 예산 계획,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총회에서 예산,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 사업계획'은 2014년 기준으로 2015년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협회장님이 유입되면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했으면 한다.
- 협회장 : 절차적인 문제라 본다.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므로 결정안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보다 조속히 결정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 협회장 : 자율인상안을 기초로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 찬성 18(현장)+47(위임)=65명, 반대 6명(위임), 무효 2명(위임)으로 협회비 인상안은 통과됨

휴식 : 15:45~15:55

2부 : 심의·의결 안건

8. 협회장 선출 선거진행

- 정진임(선거관리위원장) : 경과보고 (자료집 22p참고)
- 전체 정회원 326명 중 313명이 투표권 있음, 사전투표 45명(온라인 42+우편3) 중 마감 기한 이후 접수된 2명 무효로 총 43명 투표 유효
- 총회 참석 정회원 총 19명 중 18명이 투표
- 출마의 변 (이원규 후보)
-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많이 힘들고 지쳤다. 그래서 연임할 의지가 없었으나, 입후보 연 장기간까지 입후보자가 없어 등록하였다. 앞으로는 지난 2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투표진행
- 개표 : 김장환, 이용운, 정진임
- 투표결과 : 전체 투표권자 313명 중 63명 참여(투표율 20.1%)
- 찬성 우편 및 현장 15표 + 온라인 41표, 총 56표(찬성 득표율 88.9%)
- 반대 5표 (7.9%)
- 무효 2표 (3.2%)
- 당선소감 : 이원규 당선자
- 앞으로 2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8. 감사선출

- 현장에서 회원들의 추천으로 진행
- 정진임, 원종관, 이영기 회원 추천되었으며, 이영기 회원이 고사하여 정진임, 원종관 회 원을 감사로 선출
- 총회 참석 정회원 19명 중 17명 찬성으로 가결

9. 격려사

- 안병우 전임 협회장

10. 폐회사

- 이원규 협회장